

#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 문법 기출 모음



# I. 음운

[2017 04 11]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ɟ], [tɕ]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tɕ]이 [tɕ]이 되는 현상.

〈보기 2〉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낱낱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흙이불을 덮고 잤다.

-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낱’의 받침 ‘ㅌ’은 [tɕ]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tɕ]으로 발음된다.
-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tɕ]은 [tɕ]으로 발음된다.
- ⑤ ㉤의 ‘흙-’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흙-’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2015 06 A 11]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 듣+고 → [듣꼬]
- ㉡ 놓+고 → [노코]
- ㉢ 훑+네 → [훑레]
- ㉣ 뿔+느라 → [뿔느라]
-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_\_\_\_\_ [가] \_\_\_\_\_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ㅌ’의 영향을 받아 ‘ㅌ’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ㅍ’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킷소리라는 점이 같은 ‘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ㅍ’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014 04 A 11]

11. 다음은 ‘축약’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가) ~ (다)의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변동 중 ‘축약’은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놓고’가 [노코]로 발음되는 **(가) 거센소리되기**는 자음이 축약된 사례이고, ‘보아’가 ‘봐’로 음절이 줄어드는 경우는 모음이 축약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음의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할 경우, **(나) 어간에서만의 축약**, 어미에서만의 축약, **(다) 어간과 어미의 축약**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으셨다’는 선어말 어미인 ‘-시-’와 ‘-었-’이 ‘-셨-’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어미에서만의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 기〉

고등학교 ㉠ 입학 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 정말 ㉡ 좋다며 반갑게 인사를 ㉢ 나눴다. 눈에 ㉣ 띄게 모습이 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들 마음만은 여전히 ㉤ 보였다.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 |   | (가)  | (나)  | (다)  |
|---|------|------|------|
| ① | b    | a, d | c, e |
| ② | c    | a, b | d, e |
| ③ | a, b | d    | c, e |
| ④ | a, b | c, e | d    |
| ⑤ | a, e | b, d | c    |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운]'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얇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을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교[흐카교]'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엌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물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넙네[널레]'와 '밤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11.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기+어 → [기여]

㉡ 살피+어 → [살피]

㉢ 배우+어 → [배워]

㉣ 나서+어 → [나서]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II. 단어

[2016 03 12]

12.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A]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단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단어의 품사
큰집	큰(형용사) + 집(명사)	명사
본받다	본(명사) + 받다(동사)	동사
⋮	⋮	⋮

\* 직접 구성 성분: 어떤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

- ① 입학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 ② 그는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남달랐다.
- ③ 아침에 늦잠이 들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 ④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앞을 막았다.
- ⑤ 하루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2006 06 13]

13.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 보 기 > —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sup>1</sup>-', '-답<sup>2</sup>-'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1. '-답<sup>1</sup>-'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sup>2</sup>-'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2. '-답<sup>1</sup>-'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sup>2</sup>-'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3. '-답<sup>1</sup>-'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sup>2</sup>-'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답 <sup>1</sup> - | -답 <sup>2</sup>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007 11 11]

11.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그는 손으로 방문을 세계 밀었다. (⇒ 밀쳤다)  
 ○ 어제는 서쪽 하늘이 몹시 붉었다. (⇒ 붉디붉었다)

- ① 그 집은 매우 크다. (⇒ 커다랗다)
- ② 그는 건강을 다시 찾았다. (⇒ 되찾았다)
- ③ 그는 남의 말을 몰래 들었다. (⇒ 엿들었다)
- ④ 그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뎠다. (⇒ 헛디뎠다)
- ⑤ 그는 오늘 친구와 심히 싸웠다. (⇒ 싸움질했다)

[2006 11 14]

14.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건설 + -되다 <sup>1</sup> → 건설되다	못 + -되다 <sup>2</sup> → 못되다
발견 + -되다 <sup>1</sup> → 발견되다	참 + -되다 <sup>2</sup> → 참되다
평가 + -되다 <sup>1</sup> → 평가되다	막 + -되다 <sup>2</sup> → 막되다
처리 + -되다 <sup>1</sup> → 처리되다	영광 + -되다 <sup>2</sup> → 영광되다
( )	( )
· 다리가 <u>건설</u> 되었다.	· <u>못된</u> 장난을 치다니.
· 유물이 <u>발견</u> 되었다.	· <u>영광된</u> 자리에 서다.

- ① '-되다<sup>1</sup>'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sup>2</sup>'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sup>1</sup>'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sup>2</sup>'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sup>1</sup>'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sup>2</sup>'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sup>1</sup>'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sup>2</sup>'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올렸다.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졌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 ㉠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 ㉡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2013 10 A 13]

13.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 보 기 >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⑤ 미닫이

[2016 03 11]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낱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낱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A	B
불규칙 활용	C	

학 생: '낫다'는 (나), '낱다'는 (다)에 해당됩니다.

- |      | (가) | (나) | (다) |
|------|-----|-----|-----|
| ① 축약 | A   | C   | B   |
| ② 탈락 | B   | A   | C   |
| ③ 교체 | C   | B   | A   |
| ④ 교체 | B   | C   | A   |
| ⑤ 교체 | C   | A   | B   |

[2007 09 12]

12.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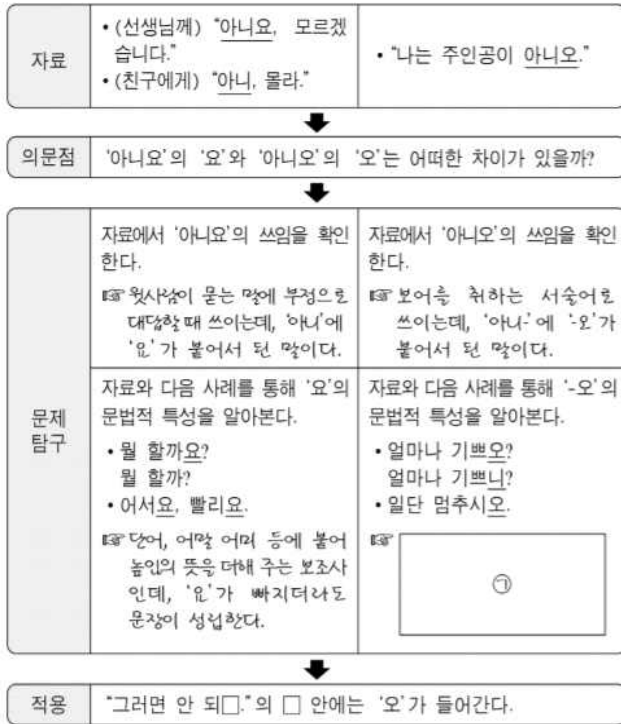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 (...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 (...이 ...을 ...에) 젖혀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 (...이 ...에)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 (...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쪄다.  
→ **쪄다** ㉤ (...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떠내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2013 06 B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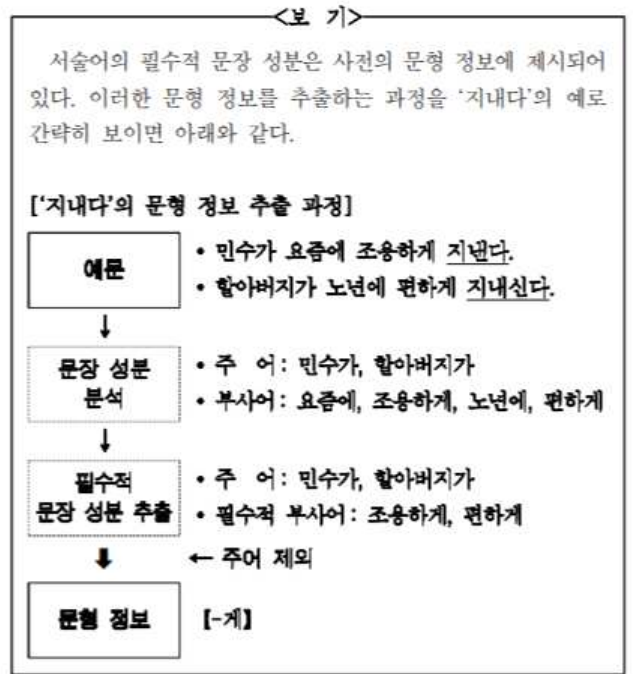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2015 09 B 13]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것은? [3점]



예문	문형 정보
①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 요즘에 가족으로 된 지갑이 인기가.	→ [...으로]
② 모두 그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제 죄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풀이다.	→ [-게]
③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와 한밤중에 다투곤 했다.	→ [...에]
④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달려 있다. 그 책에 단어장이 부록으로 달려 있다.	→ [...으로]
⑤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빠졌다. 청바지에서 물이 허영게 빠졌다.	→ [-게]

[2017 10 11]

11.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 ㉡ 벌써 바깥이 칠혹같이 어둡다.
  - ㉢ 신임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 ㉣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 ① ㉠과 ㉡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② ㉠과 ㉢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 주고 있다.
- ③ ㉢과 ㉣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 ④ ㉢과 ㉣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⑤ ㉢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2012 06 11]

11.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동일한 '체언+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생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 Ⅲ. 문장

[2015 04 A 13]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수는 ㉠ 집에 가기를 원한다.  
 ○친구는 ㉡ 밥을 먹기에 바쁘다.  
 ○영희는 ㉢ 동생이 산 빵을 먹었다.  
 ○그는 ㉣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 ① ㉠은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② ㉡은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 ③ ㉢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 ④ ㉣과 달리 ㉡의 주어는 안은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과 달리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이다.

[2016 10 13]

13. <보기>의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ㄴ. 언니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  
 ㄹ. 나는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ㅁ.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 ① ㄱ과 ㄴ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②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③ ㄴ의 안긴문장은 ㄷ의 안긴문장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 ④ ㄷ과 ㅁ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각각의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ㄹ과 ㅁ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2017 10 13]

13.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어떠한 두 사건을 '-다가'나 '-아서/-어서'에 의해 연결할 때, 두 사건의 시제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두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지 (가)~(라)에서 살펴봅시다.

(가) 찌개를 먹다가 혀를 태었다.  
 (나) 찌개를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  
 (다) 그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라) 내가 문을 쾅 닫아서 동생이 잠을 잤다.

- ① (가)와 (나)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지만, (가)에는 (나)와 달리 '-다가'로 연결된 앞 절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어.
- ② (가)와 (다)에서는 뒤 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 ③ (가)와 (라)에서는 모든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어.
- ④ (나)와 (다)에서는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 ⑤ (다)와 (라)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 모두 '-아서/-어서'로 이어졌지만, (라)는 (다)와 달리 앞 절의 사건이 뒤 절의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로 이해될 수 있어.

[2013 11 A 13]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 A: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 A: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 A: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 A: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B: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 A: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1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얼음 위에서 팽이가 돈다.  
㉡ 지원이가 그 일을 맡았다.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 ①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목적어로 바뀔 것이다.
- ②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③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뀔 것이다.
- ④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⑤ ㉢은 ㉣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접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사동어나 피동, 높임, 시간 표현,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현할 수 있다.

- 할머니께서 진지를 ㉠ 드신다.
- 아버지께서 연을 ㉡ 날리시고 있다.
-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 뛰었다.
- 나는 지금 영화관에 ㉣ 가겠다.
- 도둑이 경찰에게 ㉤ 쫓기고 있다.

- ① ㉠의 '-시-'와 ㉡의 '-시-'는 각각의 행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② ㉠의 '-ㄴ-'과 ㉢의 '-었-'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 ④ ㉣의 '-겠-'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13.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문장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사용한 대표적 유형으로는,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다.

- ①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
- ② ㉡: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
- ③ ㉢: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 ④ ㉣: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
- ⑤ ㉤: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1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 [3점]

— < 보 기 > —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13.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을 위하여 언어 자료를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에 추가할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그는 관객들에게 최면을 걸고 모두 잠들게 했다.
- 정보 산업에 미래를 걸고 있었다.
-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그래.

— <국어사전> —

걸다[갈:다] [걸어, 거니, 거오] ㉠  
○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다.  
○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을 품다.  
○ \_\_\_\_\_ ㉠

- ① 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 ②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동작을 하다.
- ③ 다른 사람이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다.
- ④ 명예나 목숨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다.
- ⑤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



13.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시험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13.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대상 어휘]**  
틈, 겨를, 사이

**[분석 방법]**

- 주어진 문장의 ( )에 있는 단어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어 앞에 \*를 표시한다.
-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단어의 의미 특성을 파악한다.

**[1차 분석 결과]**

- ㄱ.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실 (틈, 겨를, 사이)이/가 없다.
- 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벽의 갈라진 {틈, \*겨를, \*사이}에서 물이 새요.
- ㄷ. 서울과 인천 (\*틈, \*겨를, 사이)에 신도시가 들어섰다.
- ㄹ. 언니와 나는 (틈, \*겨를, \*사이)만 나면 싸웠다.

- ① ㄱ을 보면 '틈', '겨를', '사이'는 모두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② ㄱ과 ㄴ을 종합하면 '틈'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③ ㄱ과 ㄷ을 종합하면 '사이'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④ ㄷ과 ㄹ을 종합하면 '사이'와 '틈'은 [시간]의 의미를 세분해야 구별할 수 있어.
- ⑤ ㄱ~ㄹ을 종합하면 '겨를'은 [시간]의 의미만 지니고 있어.

12.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홍내/시늉**

- ㄱ.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홍내, 시늉)을/를 냈다.
- ㄴ.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홍내, 시늉)만 했다.
- ㄷ. 아이가 우는 (홍내, 시늉)을/를 했다.

○ **조성/조장**

- ㄹ. 장터에서부터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 조장)된다.
- ㅁ. 과소비를 (조성, 조장)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
- ㅂ.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 조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 ① 'ㄱ'과 'ㄷ'을 보니, '홍내'는 '남을 따라 함'을, '시늉'은 '움직임을 꾸며 함'을 뜻하네.
- ② 'ㄱ~ㄷ'을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홍내'와 '시늉'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겠어.
- ③ 내용상 'ㄱ' 뒤에 'ㄴ'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되었겠네.
- ④ 'ㄹ'과 'ㅁ'을 보니, '조성'은 '만들어 이룸'을, '조장'은 '더하게 함'을 뜻하네.
- ⑤ 'ㄷ~ㅂ'을 보니,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12.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기>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 보 기 >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함		
대화 상대	감정 상태	불만스러움 / 불만스럽지 않음
불필요함	A	B
필요함		C

- ① A에는 '구시렁거리다'를 포함시키자.
- ② A에는 '투덜거리다'도 가능한 것 같아.
- ③ B에는 '수군거리다'를 포함시키자.
- ④ B에는 '웅얼거리다'도 가능한 것 같아.
- ⑤ C에는 '속닥거리다'를 포함시키자.

# IV. 의미와 담화

[2016 04 13]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하다01**

① 「동사」 【…을】

- ①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룬다.  
▶ 운동을 하다./사랑을 하다.
- ② 먹을 것, 입을 것, 빨감 따위를 만들거나 장만하다.  
▶ 나무를 하다./밥을 하다.
- ③ 표정이나 태도 따위를 짓거나 나타내다.  
▶ 어두운 얼굴을 하다.

② 「보조동사」

- ①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  
▶ 숙제를 하게 하다./노래를 부르게 하다./몸을 청결하게 하다.

**-하다02 「접사」**

-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운동하다./사랑하다.
-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건강하다./순수하다.
- ③ (의성·의태어 이외의 일부 성상 부사 뒤에 붙어)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달리하다./빨리하다.
- ④ (몇몇 의존 명사 뒤에 붙어)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제하다./척하다./듯하다.

- ① '하다01①'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겠군.
- ② '하다01②'는 '하다01①'과는 달리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 사용되겠군.
- ③ '-하다02'는 앞 단어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겠군.
- ④ '하다01①②'의 용례로 '새 옷을 한 벌 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물에 빠질 뻔하다.'의 '뻔하다'는 '-하다02②'의 용례라고 할 수 있겠군.

[2016 10 15]

15.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크다** [커, 크니]

【I】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예] 키가 크다.

【II】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예]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키우다** 【…을】 [키우어(키워), 키우니]

크다 【II】의 사동사

- ① '크다【I】'과 '크다【II】'는 별도의 품사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겠군.
- ② '크다【I】'과 '크다【II】'의 반의어로는 모두 '작다'가 가능하겠군.
- ③ '크다【I】'의 용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크다【II】'는 사동사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군.
- ⑤ '크다'와 '키우다'는 모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끝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2014 07 A 11]

11.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다<sup>1</sup>** [골라, 고르니]

- ㉠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 땅을 고르다.
- ㉡ 붓이나 약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붓을 고르다.

**고르다<sup>2</sup>** [골라, 고르니]

- ㉢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 같다. ▶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 숨소리가 고르다.

- ① '고르다<sup>1</sup> ㉠'의 용례 '땅을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유의어로는 '메우다'가 가능하겠군.
- ② '고르다<sup>2</sup> ㉢'의 용례로 '방바닥이 고르지 않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고르다<sup>2</sup> ㉣'의 용례 '숨소리가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반의어로는 '거칠다'가 가능하겠군.
- ④ '고르다<sup>1</sup>', '고르다<sup>2</sup>'의 활용 정보에 '골라', '고르니'로 나타난 것을 보니 불규칙 용언이겠군.
- ⑤ '고르다<sup>1</sup>', '고르다<sup>2</sup>'의 품사 표시를 보니, '약기의 줄을 고르다'의 '고르다'는 동사, '치아가 고르다'의 '고르다'는 형용사이겠군.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1.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르다<sup>1</sup>** [이르러, 이르니] ㉠ 【...에】  
 ①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목적지에 이르다  
 ②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결론에 이르다

**이르다<sup>2</sup>** [일러, 이르니] ㉣  
 ①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일러 주었다.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② 【...을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한다. ㉦이를 도루묵이라 이른다.

**이르다<sup>3</sup>** [일러, 이르니] ㉧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그는 어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보기 1>—  
 'A + 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쪽이 생략되어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보기 2>—  
 ㉪.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 바가지를 씌우다  
 ㉭. 바가지를 긁다 } ⇒ 바가지이다  
 ㉮. ㉠ 닭 잡아먹고 ⇒ ㉢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이다  
           오리발을 내밀다  
 ㉯.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이르다<sup>1</sup>①'과 '이르다<sup>1</sup>②'의 유의어로 '다다르다'가 있겠군.
- ②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와 '이르다<sup>3</sup>'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③ '이르다<sup>1</sup>'은 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르다<sup>2</sup>'와 '이르다<sup>3</sup>'은 불규칙 활용을 하겠군.
- ④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르다<sup>3</sup>'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겠군.
- ⑤ '이르다<sup>3</sup>'의 용례로 '올해는 예년보다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① ㉪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 ㉬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의 ㉠ ⇒ ㉢은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가)의 '홍수'는 중심적 의미로, (나)의 '홍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
- ② [ ㉠: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번개야.
- ③ [ ㉠: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  
       ㉡: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
- ④ [ ㉠: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
- ⑤ [ ㉠: 들판에는 풀잎마다 이슬이 맺혔다.  
       ㉡: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 V. 어문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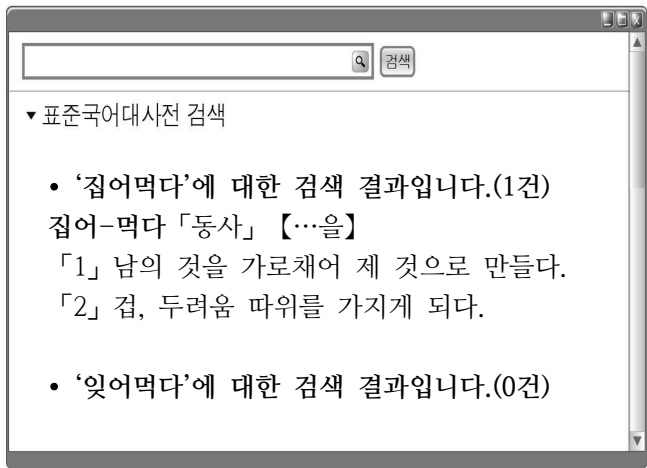
[2017 04 12]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유형	특징
본용언 + 본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함</li> <li>•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음</li> <li>•반드시 띄어 씀</li> </ul>
본용언 + 보조 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음</li> <li>•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함</li> </ul>
합성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음</li> <li>•반드시 붙여 씀</li> </ul>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 보기 >

- 온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 집어먹었다.
-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 잇어 먹었다.
-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 집어먹었다.
-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 집어 먹었다.
-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 잇어먹었다.

- ① ㉠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② ㉡은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③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허용한 것이겠군.

[2015 10 B 13]

1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표준 발음법

- 제5항 'ㅈ ㅉ ㅋ ㆁ ㆁ ㅅ ㅆ ㅈ ㅊ ㅊ ㅈ ㅊ ㅈ ㅊ'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ㄱ'은 [ㄱ]로도 발음한다.
  -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은 [ ]로 발음한다.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 ]로, 조사 '의'는 [ㄱ]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보기 2 >

- 긍정적인 마음을 ㉠ 가져야[가져야]한다.
- ㉡ 협의[희비]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다.
- 젊은이들에게 ㉢ 희망[희망]과 용기를 붙여넣다.
- 문화 유적에는 조상들의 ㉣ 지혜[지혜]가 담겨 있다.
- ㉤ 우리의[우리애]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보기>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겹받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맑-도록 [ㄱ]	늑-지 [ㄱ]	읽-지 [ㄱ]
㉡ 맑-게 [ㄹ]	늑-고 [ㄹ]	읽-거나 [ㄹ]
㉢ 닭-같이 [ㄱ]	흙-과 [ㄱ]	침-과 [ㄱ]
㉣ 앞-도록 [ㄹ]	넙-지 [ㄹ]	밟-도록 [ㅂ]
㉤ 앞-게 [ㄹ]	넙-고 [ㄹ]	밟-게 [ㅂ]

- ①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②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③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앞-', '넙-'의 경우와 '밟-'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⑤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11.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

ㄱ.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ㄴ. '육학년'은 [유강년]이 맞나요, [유강년]이 맞나요?  
 ㄷ. '걸으로'를 [거츠로]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ㄹ. '빛이, 빛은'을 [비시], [비슨]으로 발음해도 괜찮나요?  
 ㅁ. '낮'은 '밤낮으로'에서와 '낮일'에서의 발음이 왜 다른가요?

(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앞'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 [아피]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연음의 예이다. 연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표준 발음 여부를 판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부엌이, 부엌은'을 흔히 [부어기], [부어근]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연음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잘못된 발음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 ㉡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의 설명:**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구름, 나라, 하늘'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만 따른다면 '밥'과 같은 단어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바비(밥+이), 밥또(밥+도), 밥만(밥+만)'처럼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지지요. 이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거예요.

- ① '먹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② '굳이, 같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③ '퍼서(푸+어서), 폼다(푸+었다)'는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④ '미덥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⑤ '노인(老人)과 원로(元老)'는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ㅁ), 사랑니(사랑+이)

11.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 기>

○ 'ㅌ, ㅋ, ㄱ, ㅌ, ㅍ'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ㅙ, ㅞ, ㅝ, ㅞ, ㅞ'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 'ㅙ, ㅞ'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됐다

- |       |    |     |
|-------|----|-----|
| ㉠     | ㉡  | ㉢   |
| ① 패다  | 팬  | 패었다 |
| ② 패다  | 팬  | 패었다 |
| ③ 패다  | 패인 | 패었다 |
| ④ 패이다 | 팬  | 패었다 |
| ⑤ 패이다 | 패인 | 패었다 |



## VI. 국어사

[2016 06 11, 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 그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와’처럼 어간이 ‘돌 -’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벗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 -’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 > 도와’, ‘더버 > 더위’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ㄱ’ 앞에서는 반모음 ‘ㅂ / ㅅ [w]’로 바뀌었고, ‘도브 시니 > 도오시니’, ‘셔블 > 셔울’에서와 같이 ‘·’ 또는 ‘ㅡ’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ㅂ’ 또는 ‘ㅅ’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 > 아으’, ‘저서 >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서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본	굽게	고와	고은
②	(선을) 굶다	굶게	그서	그슨	굶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눕게	누버	누본	눕게	누위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잡게	자바	자본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과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u>몹스물</u> <u>여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u>몹스미</u> <u>여러</u>
	[현대 국어] <u>자연히</u> 마음이 <u>열리어</u>
㉢	[중세 국어] <u>번개</u> 구름을 <u>호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홀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호튼</u> <u>몹스미라</u>
	[현대 국어] 산심은 <u>홀어진</u> 마음이다.

**탐구 결과 :** ㉠과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겨스레 소음 둔 오술 닙디 아니 호고 녀르메 서늘흔 덕 가디 아니 호며 **호르** 쌀 두 호브로써 **죽을** 밍골오 소곰과 **늑물** 홀 먹디 아니 **호더라**  
- 『내훈』(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숨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쌀 두 홉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곰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곰과 계즈 무리와 **파과** 마늘과 부취와 기름과 댓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늑물**과 둥기 알과  
- 『박통사언해』(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곰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①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호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②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술'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③ 용언 어간에 '-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호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④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⑤ 둘째 음절의 '·'가 'ㅡ'로 변화하였음을 (가)의 '늑물'과 (나)의 '늑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1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海東 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제1장>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씩 곳 도교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론 ㉥르래 아니 그츨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세종 29년-

\* 불휘: '불휘+0(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를 나타냄)'의 형태소로 분석함.  
 \* 남근: '남+근'의 형태소로 분석함.

[풀이]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나[飛]서서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古聖(고성)과 同符(동부)하시니. <제1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제2장>

- ① ㉠의 조사 '이'는 '古聖(고성)'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군.
- ② ㉡에는 현대 국어의 '가'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군.
- ③ ㉢의 형태소 분석을 볼 때,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는 체언이 있군.
- ④ ㉣의 조사 '은'과 ㉤의 조사 '은'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자격을 나타내는군.
- ⑤ ㉥과 ㉦의 조사 '에'는 모두 앞의 체언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군.

[2016 10 11, 12]

[대화]

학생 A: '법씨'는 '벼'와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벼씨'가 아니라 '법씨'야?

학생 B: 그리고 보니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도 'ㄱ'이 'ㅋ'으로 바뀌어서 '살고기'로 쓰이고 있어.

학생 A: 그렇구나.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자료]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ㅂ'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벼+씨→법씨'에서 'ㅂ'이 생겨나는 이유는 'ㅂ>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는 'ㅂ'의 어두에 'ㅂ'이 있었는데, 당시 '벼+ㅂ>벼ㅂ'이 만들어진 후 나중에 'ㅂ'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법씨'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ㅂ>씨'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ㅂ'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 복합어 속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술ㅎ+이→술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살고기'에서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술ㅎ>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ㅂ'과 결합하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술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고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고기' 외에도 ㉡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박'이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ㅂ'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ㄷ'의 소실로 어간의 끝 'ㄷ'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뚝고'와 현대 국어의 '뚝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본	굽게	고와	고은
②	(선을) 긋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버	누본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잡게	자바	자본



# 2018 11 15

## 〈버킷리스트〉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답지]

## I 음운

문제	답
2017 04 11	4
2015 06 A 11	4
2014 04 A 11	3
2016 11 12	5
2017 06 13	1
2014 11 A 11	3

## II 단어

문제	답
2016 03 12	1 or 3
2006 06 13	4
2007 11 11	5
2006 11 14	5
2016 11 15	4
2013 10 A 13	1
2016 03 11	3
2007 09 12	5
2013 06 B 14	3
2015 09 B 13	1
2017 10 11	4
2012 06 11	5

# III 문장

문제	답
2015 04 A 13	5
2016 10 13	4
2017 10 13	1
2013 11 A 13	4
2015 11 A 13	4
2017 10 14	5
2017 06 14	2
2014 04 A 15	5
2015 03 B 13	5
2014 03 A 14	1
2013 07 A 13	5
2014 04 A 13	3
2006 09 13	4
2008 11 12	3
2008 06 12	3

## IV 의미와 담화

문제	답
2016 04 13	5
2016 10 15	4
2014 07 A 11	1
2016 07 14	3
2015 06 A 13	3
2009 09 11	2



## V 어문규정

문제	답
2015 10 B 13	3
2010 09 12	5
2014 예비시행 B 11	2
2014 예비시행 B 12	3
2015 11 B 12	4
2012 09 11	1
2017 04 12	3

## VI 국어사

문제	답
2016 11 13	3
2016 06 11, 12	2, 1
2017 03 15	4
2013 07 B 16	5
2016 10 11, 12	3, 3